

나사로 이야기는 예수의 공생애 끝부분에 해당한다. 이 후는 예루살렘 입성과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로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다. 예수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, 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했다. 이 본문에 힌트를 얻는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"죽음에 이르는 병"이란 제목의 책을 냈다.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병/죽음은 무엇을 말할까?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"생명을 얻되, 풍성히 얻으며"(요 10:10) 또 "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"(요 5:24)?

#### A. 나사로를 살림

1. 보통/일반적(popular), 그러나 예외적 이해
  - 말(글자) 그대로, 죽은 자를 살림
  - Q: 언제, 어디서나? => 당연히 누군가를—신이든 인간이든(e.g., 요 9:2)—blame
2. 다른 이해=> 너무나 말되는 이야기 (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성/상식에 호소)
  - 근거/왜?=>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으니까(요 11:6, 14)
  - 나사로와 예수는 운명 공동체
    - 요 11:4절의 신학적 이해: "하나님의 영광과 관련(about/concerning)" 있으며,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화롭게 된다. (요한복음에서, "영화롭게 됨"/"영광을 받음"(δοξάζω, 23번)은 예수의 죽음을 뜻한다. 예수는 이 일로 죽음을 맞게 된다 (요 11:46-57).
    - 놓아서 다니게 하라 (Q.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, 어떻게 문까지는 걸어 나왔나?)=>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매여,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상태.

#### B. 요한복음의 종말론(eschatology)

1. 실현된 종말론(realized eschatology)=> 종말론의 현실/현재
  - 당시의 이해(popular eschatology)=> 마지막 날에는 살리라 (요 11:24 < 단 12:2)
  - 예수(요한복음)의 이해=> 종말을 오늘 산다 (요 5:24)
  - 요 11:25-26.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나? (당근 죽지~~; 그러면, 그 뜻은?)
    - YLT: "and everyone who is living and believing in me shall not die--to the age (εις τὸν αἰῶνα, into the age to come)." => 지금 죽었다 해서, 다음 세대/세상 [여기서는 "하느님의 나라"를 가리킴]에서도 죽은 것은 아니다. 세상/죄에 대해서 죽고, 하느님에 대해여 삶(롬 6:10).
    - 죽음에 이르는 병=> 자아실현을 못함.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, 자아란 주어진 현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 사이에서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결과이기에, 그런 삶을 갖지 못한 자아(false self)는 죽음이라는 병에 매인다.
2. 종말론과 기독교론
  - Käsemann: "Christology determines eschatology" (and not vice versa). 그리스도인의 정체성. 어떤 그리스도? 그 이해가 거기에 맞는 종말론을 낳는다.
  -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: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(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느니). 예수는 로마제국에 위험 인물=> 십자가 형. 예수의 죽음의 원인/의미/성격을 잘 설명.

-----  
생각해 보기

1. 내 인생에서 "죽음"을 맞보았던 때는? 어떻게 벗어났나?
2. 내가/우리가 생각하는 종말(론)은?